

1. 머리에

조선조-성리학의 관제화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기로 하고 곧바로 동왕 3년(1394)에 궁궐(경복궁)을 짓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역대 선왕의 위패를 모시기 위한 宗廟의 창건도 서둘러 그 이듬해인 1395년에 1차로 완공을 본다. 종묘는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국가 최고의 제례시설(大廟)로서 새로운 유교적 통치이념의 중심점이 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태조는 즉위 원년에 모든 도의 안찰사에게 학교의 興廢로서 수령을 考課하도록 하라고 하여 향교에 대한 수령의

관심을 높게 했다. 이어서 수령의 직 무로서 제시되는 守令七事에 學校興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리하여 적어도 東國輿地勝覽이 나온 성종 17년(1488)까지는 전국의 모든 고을에 향교가 설립되는 이른바 '一邑一校'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조선조 家禮의 보급 계몽은 고려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눈 에 띄는 현상이다. 태조 때부터 경 제육전을 통한 五服制의 준용과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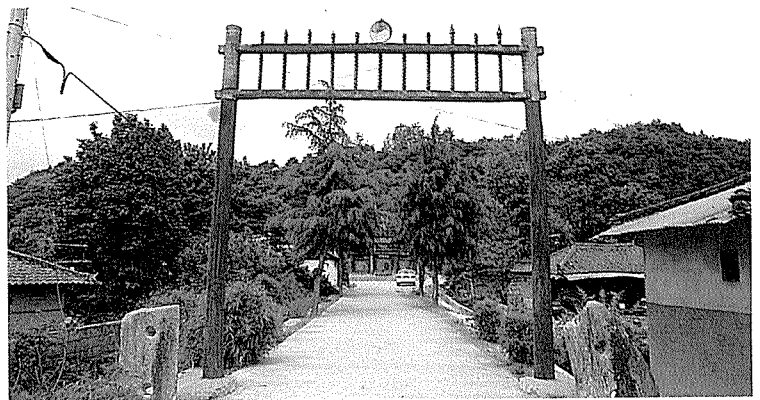
불어 가례의 三年喪 및 家廟制 등이 시행되었고 태종 때에는 가례 시행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시책이 나왔으며, 평양부로 하여금 가례를 印造(150部)하여 각 司에 頒賜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入仕者에게 가례를 시험 치게 함은 물론, 이미 입사한 경우라도 七品이하에는 역시 그것을 시험케 하였으며 양반층에서 家廟立祀를 불이행 할 때는 엄 별케 하였다. 이렇듯 조선조 역대 왕들의 일련의 조치는 성리학의 관 제화로서 '유교적 思考禮系의 轉換' 이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사회는 태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동안에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시 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성종 시대에는 문물제도가 확립되고 유교사상이 서민에 까지 보급됨으로서 조선왕조 5백년의 유교적 기반 이 마련되었다.

즉, 조선 500년의 역사를 통해 생활속에서 행위규범으로서, 사회제 도로서, 도덕적 가치기준으로서, 나아가 신앙적 의식 내면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유교사회로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조 선왕조는 관제화 성격의 유교적 체제로 사회조직의 정비를 실현해 갔 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제도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새로 학교도 설립하 고 朱子家禮에 따르는 가묘의 설치 등 다양한 유교적 시설물이 전국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유교 유적- 그 다양성과 풍부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향교의 대성전에는 신라 시대의 六頭品 귀족



유교건축의 상징인 홍살문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1)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金知民 / 목포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by Kim Chi-Min

출신으로 그 시대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설총과 최치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는 곧 신라시대에도 유교 문화의 수용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는 귀족 자제들의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여 서민 자제의 교육기관인 당과 구분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태학의 교과목은 유교 경전이었고, 경당에서의 교육도 유교적 도덕이 주였다.

한편 소수림왕은 동년 동월에 前泰王 豎으로부터 僧 順道를 통해 불교를 전수 받았다. 소수림왕은 불교를 공인하면서 동시에 유교 교육의 최고 기관인 태학을 설치한 셈이다. 유교 교육의 최고 기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교문화의 풍토가 조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본다면 한국에서의 유교 역사는 중국의 그것에 버금 한다고 추단할 수 있다. 太學의 설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600여년의 역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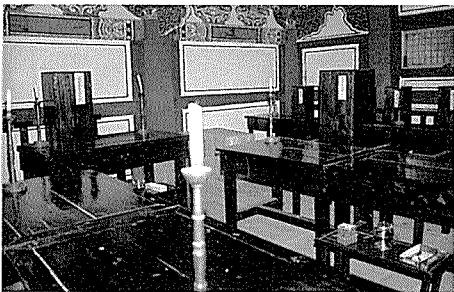
유교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에 있어서 治道의 근간이었으며 가정 및 사회에 있어서 도덕규범의 준거가 되었다. 고려시기에는 불교와 쌍벽을 이루어, 유교는 경세지도로서, 불교는 심령구제지도로서 각각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조선사회의 유교 신분은 전 시대와 크게 구별되어 조선 전 기간에 걸쳐 국교로 숭봉되었다. 사실 조선사회에서 유교는 계급 조직을 바탕으로 한 질서의 확보와 국가적인 통일성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지방 향교의 문묘는 당시 유교적 신앙대상의 기본 유형을 이루고 있었고 이는 조선 후기의 서원과 더불어 선사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유교조직의 기본단위를 이루었던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 체제 속에서 설립된 유교건축은 현재 전국의 아주 작은 마을 단위에 까지 거의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건축적 형태는 우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관학으로서 향교, 16세기에 등장한 서원, 문중의 제례를 치

르기 위해 마련된 재실, 이외 가묘, 사우, 정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유적은 아직까지 지방의 유교문화 경

표1 조선의 사회상황과 유교건축

시기	사회·유교적 상황	건축 상황
1400	• 태조즉위(1392)-유교사상을 건국이념으로	• 종묘 창건(1395) • 향교건축의 전국적 확산(태조-성종)
50-	• 한양으로 환도(1405) • 국내를 8도로 나눔(1405)-중앙집권 국가 확립 • 세종(1418-1450)	• 가묘건축 확산(성종)
1500	• 유교사상이 서민에 까지(성종) • 동국여지승람 완성(1487) • 무오사화(1498)	• 정려건축(조선 전 기간)
50-	• 16세기 성리학 전성기(이황, 이이, 김인수, 기대승 등) • 4대 사화후 은둔 사상 최초 서원(백운동) 설립(1543)	• 서원건축 등장(1543) • 농운정사(1561) • 옥산서원(1573), 도산서원(1574) • 필암서원(1590)
1600	• 당쟁시작(1575) • 임진왜란(1592-6)	• 도동서원(1605) • 병산서원(1613)
50-	• 병자호란(1636)	• 서원건축 남설, 사우와 혼동(17후 - 18세기) • 재각건축 확산
1700	• 남인 서인 당쟁 커짐(1660) • 17~18C사림의 분당 정치 향촌: 양반, 유교적 사회 윤리관	• 서원 남설(한 導에 80~90개) • 영조즉위(1724~1776) • 문화적 전성기(영·정조) • 실학의 전성기(18C중~19C중) • 양명학 이해(18C)
50-	• 천주교 대박해(1801) • 목민심서 완성(1818) • 대원군의 서원철폐(1868) • 의리파, 개화파 대립(한말)	• 서원·사우건축 난립 * 수원성 건설(1706)
1800	• 천주교 대박해(1801) • 목민심서 완성(1818) • 대원군의 서원철폐(1868) • 의리파, 개화파 대립(한말)	• 전국 47개 서원 존치(1871) • 돌산·여수·완도·지도향교창설(1897)
1900	• 한일합방(1910)	• 통영향교 창설(1901) • 오천향교(1905)



초계향교 문묘구역
(건물배치의 정면성으로 인해 엄숙과 질제의 공간 미가 잘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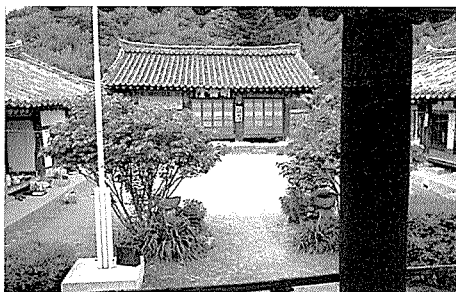
초계향교 위패 진열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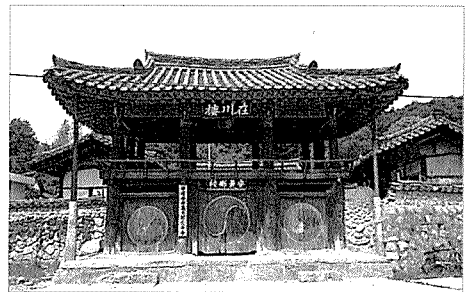
순천향교 대성전



순천향교 東廡



누각에서 내려다 본 안의향교의 교육공간



안의향교 누각(정문)

관 조성에 큰몫을 하고 있다.

표1은 조선왕조 전 기간의 사회변동에 따른 유교 건축의 상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종묘 창건(1395년) 이후 충남의 오천향교(1905)를 마지막으로 관제의 유교건축은 그 막을 내린다. 나라가 어수선하였던 시기, 그리고 국가의 지원도 없이 지방 유림 자체로 건립을 본 오천향교의 의미는 우리에게 조선 유교의 이념과 권위를 여러가지로 생각해 해준다.

필자는 표1에 언급한 여러 유적중 향교, 서원, 사우, 재실, 가묘, 정려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사실을 다음 호 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질서와 절제의 미

13세기에 安珦(1243~1306)은 송으로 부터 신 유학이라 할 수 있는 性理學을 도입한다. 그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梅庵 朱熹(1130~1200)를 흠모하면서 그의 호를 본따 자신의 호를 梅軒으로 하였다. 메헌은 국자감의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를 가르켰다.

聖人の 道는 일상생활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자식이 되어서는 孝를 해야하고, 臣下가 되어서는 忠를 해야 하며, 禮로써는 가정을 規律하고, 信으로서 朋友를 사귀어야 한다.

“禮”는 유가사상의 근간이 된다. 원래 禮란 ‘理’(理之不可易者) 또는 ‘義之實’이라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른 道理 ‘마땅히 행하여야 할 원리’(所當然之則) 또는 ‘善으로서의 德目’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의 의미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당연히 되는 ‘名分’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조선조 성리학에 기초한 예와 같이, 고도로 세련된 예 일수록 단순한 습속 이상의 합리적 근거(思考)를 갖는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가 합리적 근거를 지닌다는 것은 곧 그것이 이성의 산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성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에 따라 ‘別’ ‘序’의 기능, 이른바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예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유교건축은 그 어느 한국건축보다도 ‘질서’가 조영의

기본개념으로 깊숙이 자리한다. 엄격한 유교적 제례 절차와도 같이 격에 따라 위계성을 지닌 질서체계가 있다.

질서는 횡적이 아닌 종적(상·하)체계로 일관되어 불교식과 크게 구별된다. 즉 사찰의 법당 내부는 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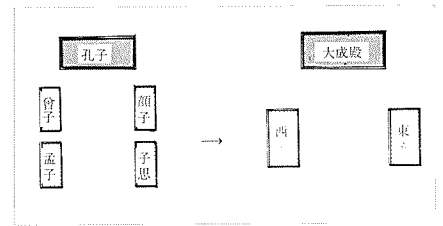


그림1. 위패의 위계적 질서와 건물배치 개념

으로 중앙실과 협실 등으로 구별되어 주불과 보조불이 안치되는 반면 사당은 상·하 개념으로 공간이 분할되어 위패가 모셔진다. 특히 문묘의 경우 그러한 질서개념은 바로 건축적 형태로 나타나고 집 모양도 孔子와 四聖(맹자, 증자, 자사, 안자)의 위패가 안치된 대성전은 규모도 크고, 다소 화려한 반면 그외의 학자가 모셔진 무(廡)는 행랑채 수준에 머문다.

한편 유교건축에 있어 질서의 미는 축선 사용과 균형에 있다. 특히 안정된 좌·우 대칭균형 기법은 정적이고 장중한 유교적 분위기를 잘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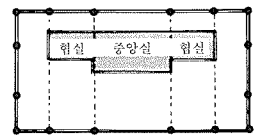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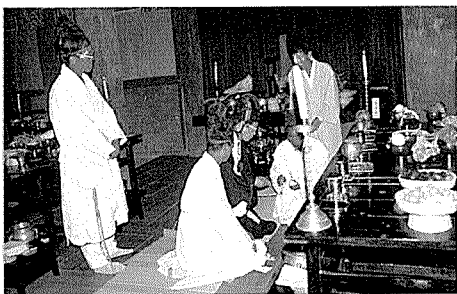


그림2 불교건축 평면의 위계성

유교건축은 일면 유교라고 하는 종교건축이면서도 종교가 주는 신비감, 또는 뛰어난 상징적 건축요소는 지니고 있지 않다. 같은 시기의 불교건축 문화에서 흔히 보이는 화려함이나 치장적인 면도 없다. 오히려 절제된 단순성 만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유교가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인 동시에 ‘仁’과 禮라는 기본이념으로 백성을 교화하는데 그 기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禮를 말하기를

“예는 사치함 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한다. 검약함으로써 실패하는 자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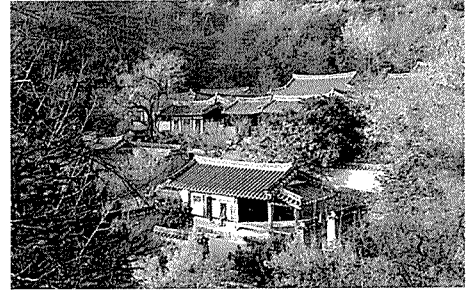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유교문화는 이렇듯 절제, 간결, 소박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방 유교의



나주향교 추계제향(제례는 유교실천 의식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현재 유교유적의 유일한 기능으로써 남아있다)



서원건축의 효시가 되는 백운동(소수)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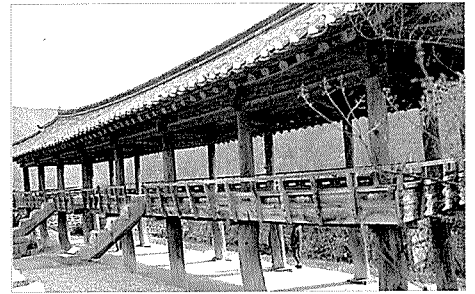
이 퇴계선생이 거쳐했던 도산서원



도산서원 강당



종교적 의미로서 神門에 해당하는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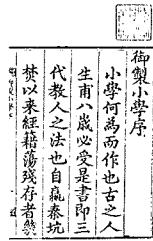
병산서원의 만대루 전경

상징적 공간이었던 대성전도 정면 5칸이 최고의 규모였고 상당수의 향교에서는 정면 3칸이 보편적인 건축으로 받아들여 졌다. 유교사회에서 당시 국가적 배려나 지방 유림들의 관심으로 본다면 그 이상의 규모로, 또는 단층이 아닌 중층의 건물로도 조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공포의 경우도 익공식이 절대적인 유형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후기에 사찰건축의 본전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진 다포양식과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명륜당이나 강당의 경우는 더 단출하게 민도리 양식이 주류를 이룬다. 단적으로 말해 유교건축의 아름다움은 절제된 단순함에 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지나친 꾸밈도 없다.

유교건축의 가르침-『小學』

94년 8월에 유교건축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중국曲阜에서는 '孔子사상과 21세기'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다. 중국과 한국의 참가 학자들은 한결같이 유학의 인본주의와 자연애호 사상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도덕타락과 물질만능 풍조, 자연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21세기에도 유용한 사상체계가 되기 위해선 공자 사상의 비판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한민족에 있어 유교는 明理(이치를 밝힘)를 통해 인지를 계발시켰고 常綱의 윤리를 확립하였으며, 仁을 통하여 도덕적 정서를 함양시켰다. 또한 유교적 심성관은 한국전통사상의 한 기저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유교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치문화 창조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른바 패륜의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家統으로



소학 서문 부분. 유교적 윤리관을 체득시키기 위한 아들수신서로 정려되어, 사학(四學)·향교·서원·서당 등 당시의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다루었다.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적 예의식이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교적 가치관의 정립이 다시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논어·맹자 같은 유교경전도 좋지만 오히려 『小學』이 이 시대의 작은 도덕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소학은 송나라 劉子澄이 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지은 아동용 수신서로써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성리학에 뜻을 둔 유생뿐만 아니라 민간에 까지 널리 읽혀져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윤리관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유교유적은 이제 오로지 제향의 기능만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젊은 층의 철저한 소외 속에 노인들의 전유물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적들은 풍부한 건축적 공간을 갖고 있고 아울러 지방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는 그점에 착안하여 『소학』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함이 어떨까 한다. 피아노나 컴퓨터 학원도 좋지만 충효교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또한 향토문화 자료실, 전통문화 교육 및 행사장 등으로도.

마을 어귀에 홀로 외롭게 자리하고 있는 旌閭閣이 현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충신, 효자, 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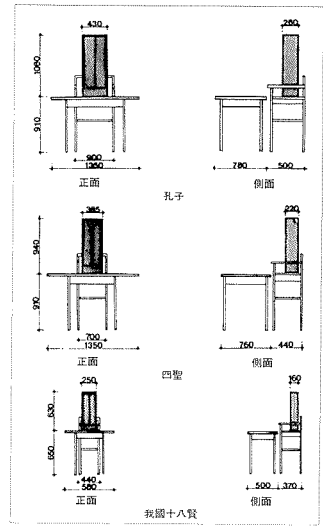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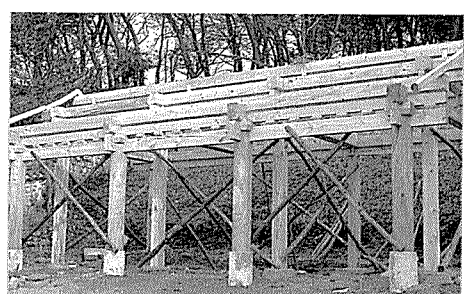
그림3. 위패장과 진설상의 위계적 질서(경남 거창 향교)



일자형 평면이 주류를 이루는 구례 유씨문중의 재실



구례 방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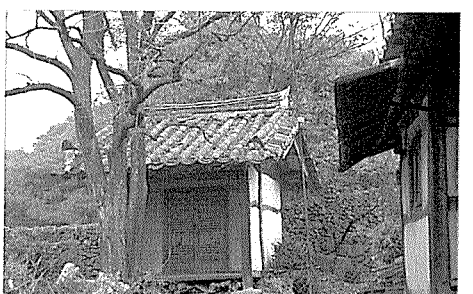
유교건축의 맥을 이어 가기 위하여 복구중인 장흥의 연곡서원



마을어귀에 세워진 구례의 최어진(1646~1725) 효자 정려



3칸으로 규모가 큰 왕씨3세 충효정려



아산 외암리 참판댁의 가묘